

대한민국 뉴스
NEWSIS

트럼프 "시진핑과 中國민에게 신중국 70주년 축하 전해"

기사입력 2019-10-02 09:51

전날 트윗에선 "무역전쟁서 美가 승리"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중국 건국(국경절) 70주년을 재차 축하했다.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시진핑 주석과 중국 국민에게 건국 70주년 축하의 뜻을 전한다"는 짤막한 글을 게재했다.

앞서 중국 중앙(CC) TV는 트럼프 대통령 등 국가 정상들이 시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의 뜻을 전했다고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CCTV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축전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70주년을 축하하고, 중국 국민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윗을 통해 대(對) 중국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기고 있으며, 이길 것"이라며 "그들은 우리가 그들과 타결했던 협상을 깨지 말았어야 했다"고 적었다. 이어 "중국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와 함께 중국 전문가인 조너선 워드가 쓴 글을 리트윗하기도 했다.

워드는 "미국은 21세기 군사·경제강국이 됐으며, 이제 미국을 뛰어 넘으려는 중국의 계획과 야망을 주시하고 있다"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무역전쟁)은 미국이 이에 대응하고 있다는 뜻(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이라고 밝혔다. 워드는 또 "현재 무역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군사력 경쟁에서도 구체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6일(현지시간) CNBC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3명은 인용해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협상이 오는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개최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류허 중국 부총리가 국경절 연휴 이후인 10월 둘째주(10월 7~13일)에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미중 무역협상에 참가할 중국 측 협상단을 이끌고 갈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sophis731@newsis.com

- ▶ K-Artprice 오픈! 미술품 가격정보 한눈에 보세요
- ▶ 네이버에서 뉴시스 채널 구독하기
-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3&aid=0009483665>
